

프로스펙스, 학생부문 산업자원부장관상 수상 한정된 공간속의 제품 홍보, 패키지디자인 매력 느껴



조수용

경희대학교 시각디자인 전공

(사)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패키지디자인대전은 포장디자인에 대한 일반의 인식과 관심을 고취시킴으로써 포장디자인 발전을 촉진하고 독창적인 우수포장디자인 개발로 판매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생활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행사로 지난 해로 제12회를 맞게 됐다.

금번 제12회 대한민국패키지대전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상을

신설, 일반부문과 학생부문 대상으로 시상식을 가졌다.

학생부문 산업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한 경희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 조수용씨를 만나, 수상작인 '프로스펙스'의 제품 컨셉 및 패키지디자인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조수용 씨는 산업자원부장관상 수상에 대해 "큰 상을 주신 여러 협회 관계자 분들과 지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하면서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용 씨는 외국의 스포츠 브랜드들의 물량공세로 국내 유망 산업이었던 신발 산업이 사양길을 걷고 있는 현

소비자 구매 자극하는 패키지디자인 효과 적용

실을 바라보면서 프로스펙스 페어 패키지디자인을 시도하게 됐다.

“국내 신발업체가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독창적인 개발 노력 없이 외국 브랜드들의 전략 따라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패키지 부분의 전략개선을 목적으로 패키지디자인을 하게 됐습니다.”

조수용 씨는 ‘스포츠는 젊음’을 상징하는 만큼 10~20대에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프로스펙스 페어 패키지디자인 개발에 착안, 패키지 자체의 브랜드 마케팅 전략면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프로스펙스 페어를 패키지디자인은 먼저 ‘페어 플레이 정신’과 신발이 지닌 기능적인 특징인 ‘에어’를 강조할 수 있는 비아이 제작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하도록 제작했습니다. 또한 젊은 타겟층에 맞춰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의 비주얼로 승부하고자 했습니다.”

조수용 씨는 “지금까지의 신발패키지들은 고가품 패키지임에도 불구하고 구입 후 제품의 보호 이외의 용도로 쓰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재활용 된다 해도 전혀 관련 없는 보관함 정도로 활용된 것이 사실”이라고 과거 패키지디자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에 보지 못한 이색적인 패키지 지기구조를 적용해 제품이 팔리기 전까지는 디스플레이적 요소로 쓰이는 한편, 팔리고 난 이후에는 쇼핑백이 필요없이 신발주머니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고 강조했다.

종합디자인인 패키지의 매력 때문에 디자인학을 선택하게 됐다는 조수용 씨는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과물을 제출해야 할 때 아쉬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수용 씨는 “국내 패키지디자인산업을 바라보면서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회 등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올해 졸업과 함께 우수 디자이너로 발전하기 위해 많이 배우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패키지디자인은 광고, 사진, 일러스트, 아이덴티티, 타이포그래피, 편집 등의 모든 요소가 한정된 공간 속에서 보여져야 하기 때문에 가장 어렵지만 가장 버라이어티 한 흥미진진한 분야라고 밝히는 조수용 그가 국내 패키지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젊고 창조적인 인력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박초혜 기자